# 공동체 기관으로서의 중국계 은행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 공동체 지도자로서의 창업자

중국계 은행의 이사들은 동시에 공동체의 지도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림펭시앙(Lim Peng Siang)은 1914년을 제외하고 1913년부터 1916년까지 싱가포르 중화총상회(Singapore Chinese Chamber of Commerce) 회장을 지냈고, 1921년부터 1941년까지 화인참사국(Chinese Advisory Board) 위원이었습니다. 화교은행(Oversea-Chinese Bank)의 탄쳉시옹(Tan Cheng Siong)은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였고, 중화총상회 회원이자 화인참사국 위원이었습니다. 복건계 상인들은 고려구락부(Goh Loo Club)나 이화헌구락부(Ee Hoe Hean Club) 같은 클럽에서 만나 중국 소식을 나누고 사업을 주선하였습니다. 탄친투안(Tan Chin Tuan)도 그곳에서 훗날 자신을 고용한 은행가들을 소개받았습니다.[1]

이러한 겹침 덕분에 은행은 예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13년과 1931년의 실패가 드러낸 이해상충도 바로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인 이사에게 대출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를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예금자는 은행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처럼 묻지 않았습니다. 1914년의 식민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지 조례는 이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문제의 한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즉 공동체의 저축이 몇몇 유력 가문의 운명에 집중되는 문제는 은행이 창업자들의 울타리를 넘어 성장하고 나서야 해결되었습니다.

## 은행 이용 습관의 확산

중국계 은행들은 유럽계 은행이 닿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허프(Huff)는 이들 은행이 유럽계 은행이 응대할 수 없던 중국계 저축자, 사업가, 기업가의 시장을 개척하였고, 더 넓은 공동체에 은행 이용 습관을 퍼뜨렸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또한 제조업을 포함하여 더 다양한 업종에 대출하였습니다. 유럽계 은행들은 무역금융과 우량 부동산담보대출에 치중하여 제조업을 대체로 외면하였습니다.[2] 이 점에서 중국계 은행들은 자기 방언 집단에 대한 봉사를 넘어서는 개발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신탁 업무도 맡았습니다. 1919년 5월부터 화풍은행(Ho Hong Bank)은 유언집행자 및 수탁자로 활동하였습니다.[3] 중국계 가문에게, 공동체에 잘 알려진 이사들이 있는 은행이 유산을 관리하는 것은 중간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한쪽에는 편파적일 수 있는 가족 유언집행자가, 다른 한쪽에는 중국계 가족 관습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영국계 신탁회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A편 제III장에서는 중국계 조상 신탁의 법적 어려움을 다루었습니다. 제E편은 현대 금융 중심지의 신탁 업무가 이러한 출발점에서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보여줍니다.

## 교육과 자선

중국계 은행의 지도자들은 학교와 자선 사업에 대규모로 자금을 댔습니다. 탄 카키(Tan Kah Kee)는 1919년 싱가포르에 화교중학(The Chinese High School)을, 1921년 샤먼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리콩치안(Lee Kong Chian)은 1934년부터 1957년까지 화교중학 이사회 의장을 맡았고, 1952년 이씨기금(Lee Foundation)을 설립하여 1960년부터 말라야에, 1965년부터 홍콩에 지부를 두었습니다.[4] 자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선 활동은 은행이 의존하던 사회적 지위를 더욱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공동체의 학교에 자금을 대는 은행가라면 구성원들이 자신의 저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은행가였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에도 싱가포르의 은행과 이를 설립하거나 지배해 온 부유한 가문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세운 가문들은 재단도 세웠고, 이 재단들은 지금도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면서 교육, 문화, 연구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제E편 제III장은 오늘날 이러한 부가 보유되는 패밀리오피스와 자선 구조를 다룹니다.

## 공동체 은행에서 국가대표 은행으로

방언 은행은 하나의 유형으로서는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고객은 방언 공동체를 넘어 확대되었고, 경영진은 서양 은행업의 방식을 받아들였으며, 결국 국가는 이들을 다른 은행과 똑같이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1932년 합병으로 탄생한 기관은 오늘날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5년 말 OCBC는 총자산 6,756억 9,000만 싱가포르달러, 순이익 74억 2,000만 싱가포르달러를 보고하였습니다.[5] 이 규모는 이후의 발전이 낳은 결과이며, 제C편, 제D편, 제E편에서 이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 토대는 양차 대전 사이에 놓였습니다. 싱가포르 화교 자본이 소유하고, 지역을 지향하며, 공동체 내 지위로 예금자에게 신뢰를 준 인물들이 이끈 은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 흔한 오해

OCBC는 때때로 1932년에 설립된 은행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1932년의 법인은 1912년, 1917년, 1919년에 설립된 세 복건계 은행의 구제 합병으로 탄생하였으며, 그중 두 곳은 1931년의 손실 이후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방언 은행을 폐쇄적인 클럽으로 묘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해를 부릅니다. 자본과 지도부는 한 언어 집단에서 나왔지만, 이들은 더 넓은 중국계 대중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으로부터 예금을 받았고, 광익은행(Kwong Yik)의 경우에는 말레이계와 체티아르(Chettiar) 고객으로부터도 예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인뿐 아니라 제조업자에게도 대출하였고, 멀리 런던과 뉴욕에까지 대리점을 두었습니다.

## 주

1. Wikipedia, “Lim Peng Sian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13년부터 1916년까지 싱가포르 중화총상회 회장(부회장이었던 1914년 제외); 1921년부터 1941년까지 화인참사국 위원; 입법평의회 의석을 여러 차례 고사함; ISEAS, “Biographical Notes: Tan Chin Tuan (1908–2005)”, 2023, 1면: 탄첸시옹은 치안판사를 지냈고 중화총상회 회원이자 화인참사국 위원이었음; ISEAS, “Biographical Notes: Tan Chin Tuan (1908–2005)”, 2023, 1면: 고려구락부와 이화헌구락부는 복건계 상인들이 만나 중국 소식을 나누고 사업을 모색하던 장소였음; 탄친투안은 그곳에서 탄이안키암(Tan Ean Kiam)과 화상은행(Chinese Commercial Bank) 전무이사를 소개받았으며, 이들이 훗날 그를 고용함. ↩

2.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4면 및 8면: 중국계 은행들은 “tapped a market of Chinese savers, businessmen and entrepreneurs that European banks did not reach”였고 말라야에서 “encouraged the ‘banking habit’ and attracted additional finance”; W. G. Huff, “Currency Boards and Chinese Banking Development”, 2003, 7–9면: 유럽계 은행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대외무역 금융과 일부 우량 부동산담보대출이었음; 중국계 은행들은 “financed a wide range of activities, including manufacturing”. ↩

3. Wikipedia, “Ho Hong Bank”(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19년 5월부터 이 은행은 유언집행자 및 수탁자 업무를 시작함. ↩

4. Wikipedia, “Tan Kah Ke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19년 The Chinese High School(현 Hwa Chong Institution)과 1921년 샤먼대학을 설립함; Wikipedia, “Lee Kong Chia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34년부터 1957년까지 The Chinese High School 이사회 의장; 1952년 싱가포르에 Lee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Foundation을, 1960년 말라야 지부를, 1965년 홍콩에 Lee Foundation Limited를 설립함. ↩

5. OCBC, *Annual Report 2025*, "Financial highlights"(ocbc.com,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총자산 6,756억 9,000만 달러; 순이익 74억 2,000만 달러. ↩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